

2012. 3. 9.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366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 안 자	회 부 자	상 정 자	의 결 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 3. 5.	2012. 3. 5.	2012. 3. 8.	2012. 3. 8.	환경정책과장	

2. 제안설명요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4조)

나. 인명피해 보상기준(안 제7기조)

- 사망시 최대 1천만원, 상해시 최고 500만원

다. 농작물 피해보상(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안 제1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난해 충주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액은 168건에 94,876천원이며, 피해면적은 234,253m²임.

야생동물 피해 168건중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135건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 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형편임.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11년 8월 경남 창원에서는 농민 1명이 중상을 당하고 엽사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음.

이렇듯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해마다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규모 및 절차 등의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인명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개정조례안의 보상범위를 살펴보면 등산 중 독사에 의한 사망, 벌초 중 말벌에 의한 사망 등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생계활동이 아닌 여가 및 개인활동으로 인한

611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충주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는 25농가에 대해 32,000천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2,94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보조 60%, 자담 40%)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시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1) 질의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대책은?

답변 : 전기울타리 설치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질의 : 인명피해 사망 보상기준이 너무 낮은데?

답변 : 환경부의 권고안이며, 위로차원의 보상임.

(3) 질의 : 안 제6조의 인명피해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변 : 여가활동 등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4) 질의 : 안 제15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맞지 않는데?

답변 : 업무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음.

6. 심사결과

-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결